

OPINION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문화산책

독일의 문화수도 뮌헨 그리고 광주

백홍승

클래식음악 칼럼니스트



독일의 뮌헨은 세계 여러 도시 중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이며 언제나 그립고 가고 싶은 곳이다. 무엇보다 나의 고향 광주와 뮌헨 시민들의 문화의식과 정체성은 다른 듯하면서도 묘하게 닮은 곳이 많다.

뮌헨은 독일 바이에른 주(州)의 주도(州都)이며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 큰 도시로 인구는 약 150만 명이다. 광주는 1896년부터 2005년까지 109년 동안 전남 도청의 소재지였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5대 광역시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 인구는 약 141만명이다.

뮌헨은 유럽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매년 계속되는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수년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빅5'에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 '바이에른 주' (州)는 BMW 등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이며 '뮌헨'은 IT, 생명공학, 출판 등의 영역에서 독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뮌헨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출판하고 있고 금융과 보험의 도시로도 유명하며 과학과 연구의 중심도시로도 손꼽힌다. 바이에른 주립도서관(막시밀리아네움 Maximilianeum)은 600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유럽 최대의 도서관이며 독일을 대표하는 종합대학인 뮌헨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8개의 시립예술단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다양한 전통음식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맛의 도시'라 할 수 있다.

1995년에 시작된 광주비엔날레는 아트넷(Artnet)에 의해 세계 20대 비엔날레에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다. 비록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영남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기도 했으나 현재 'AI', '자동차' 산업 등을 미래 중심 산업으로 선택하고 도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집약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의 미래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2차 대전 기간 중 뮌헨은 1942년 6월에 결성되어 1943년 2월까지 활동했던 백장미단(白薔薇團) 결사대의 중심지였다. 백장미단은 나치에 대항하여 뮌헨 대학의 대학생들과 그들의 지도교수가 구성된 비폭력 저항 그룹이다. 1939년부터 나치는 유럽인의 유전자 풀(gene pool)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종학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평범한 의대생 한스 솔과 그의 여동생 조피 솔은 나치의 인종학 정책을 비난하는 아우구스트 폰 갈렌 주교의 설교에 크게 감동받았다.

그들은 설교 전문을 복사하여 1943년 2월 18일 목요일 뮌헨 대학 교정에 뿌렸다. 계수타포에 체포된 백장미 단원들은 체포된 지 단 4일 만에 형식적인 재판 후 항소 절차 없이 단두대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한스는 단두대에 목을 올려놓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다. "자유여 영원하라!"(Es lebe die Freiheit!)

광주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980년 5.18민중화운동 등을 통해 민주와 평화, 인권, 저항의 도시로서 인류

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던 도시라는 점에서 시민들은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인구수가 광주와 거의 같은 도시인 뮌헨에는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을 비롯하여 뮌헨 필, 뮌헨 심포니 등 유명한 오케스트라만 해도 5개가 있으며 그 밖에도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단,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바이에른 뮌헨 발레단 등 유수의 공연 단체들이 월드클래스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예술의 도시다. 따라서 뮌헨 시민들의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대단하며 독일의 문화 수도는 바로 뮌헨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예를 들면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 베를린 필보다 낫다는 식이다.

수년 전 광주시향의 악장을 비롯하여 현악기 수·차석급 단원 12명이 뮌헨에서 요셉 슈타인(현 뮌헨 심포니 수석취직자)의 지휘로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의 멤버들과 연합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 솔직히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와의 기량 차이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란 인연이라 할 수 있겠고 창단 40여 년 광주시향의 연주력(演奏力)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공연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

작년 가을 광주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를 배출한 도시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거기다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메타드급의 복합 문화 소품물들이 차례로 생기면서 이제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니 경제력으로는 아직 뮌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독일의 문화수도 뮌헨처럼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도 광주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을 학수고대(鶴首待時)한다.

기고

오월 문학, 변화와 실험을 향한 길

한경숙

오월문예연구소 상임연구원·시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학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려면, 그 기억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야 한다. 5월 광주를 다른 문학작품이 그 자체로 강력한 감동과 울림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월 문학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단순한 재현에서 벗어나, 5월 광주가 던지는 질문과 가치를 새롭게 탐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월 문학이 단순히 한국 사회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월 광주를 다른 문학이 다른 국가의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 저항과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된 오월 문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 5월 광주와 1989년 중국 톈안먼 민주화 운동, 1973년 칠레 쿠데타 당시의 문화와 연결한다면 어떻게? 비슷한 시대적 아픔을 공유하는 문화적 흐름 속에서, 오월 문학은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젠더, 계급,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각들이 오월 문학 속에서 교차하며 공존할 수 있다면, 더욱 풍성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월 문학상'과 같은 문화적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기존의 작품들이 가진 문학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실험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학상의 틀을 확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불어, 해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오월 문학이 가진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오월 문학이 더 이상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월 광주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적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어떻게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오월 문학이 단순한 역사 기록의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 노동 운동, 민주주의의 가치와 연결 지어 5월 문학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실천과 연결할 때, 비로소 문학은 살아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오월 문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그 발전의 중심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창의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 문학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게 만들며,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예술이다. 이제 오월 문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문학적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독자투고

단속 사각지대, '만화 카페' 규제 필요

요즘 놀이 문화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아진 곳이 만화 카페이다. '만화 카페'란 만화책을 읽으면서 음료나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컴퓨터, 보드게임, OTT 시청 등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단속 사각지대를 틈타 일명 '곰수 영업'이 성행하면서 '청소년용 모델',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기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만화 카페는 밀폐된 공간이 있을 때 단속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만화 카페는 빔프로젝터 등으로 문을 대신해 사실상 밀폐된 구조로 이용된다. 밀폐된 공간 안에는 침구류가 갖춰져 있고, 불을 끄면 내부 모습도 볼 수가 없다.

실제 청소년 이용객이 사용한 방에는 피임 기구가 발견되고,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몰카(불법 촬영물) 범죄뿐 아니라, 촬영된 성착취물이 불법 성인 사이트에 유통돼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판매, 배포, 구입, 시청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일제층 여성경찰서 학교전담팀 경장

취재수첩

'민주주의 봄' 언제 오나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봄을 알리는 절기인 '춘분'을 앞두고 최근 난데없는 3월 폭설이 내렸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마치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듯한 고사성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와 사회는 분열됐고, 경제는 망가졌다. 비상계엄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호소'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후 대한민국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매주 주말과 휴일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갈등과 반목은 현재의 결정판 남긴 현 시점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히 서부지역 폭동 사태를 목격한 시민들은 탄핵심판 이후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현재의 탄핵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후에도 대한민국은 한동안 불안정한 시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100% 동원할 것을 예고할 정도로 테러 위협과 함께 물리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들은 이러한 답답함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염원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탄핵심판 심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는 변론 종결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선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났었다.

광장의 힘으로 내란법 윤석열을 헌법재판소 법정 앞으로 끌고 왔으니, 현재는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절기상 봄이 왔지만 아직 '내란의 겨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결의로 '민주주의의 봄'이 한시라도 빨리 다가오길 바란다.

사설

꼬이고 꼬인 의정갈등 '솔로몬의 지혜' 절실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증원 이전 수준으로 원점 환원하면서 해결될 줄 알았던 의정갈등이 집단 휴학생들의 미복귀 등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급기야 학교측이 의대생 집단 휴학을 불허하며 이달말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등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방향을 내오고 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년의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원'이라는 강경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이제 의정갈등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학생들은 "이 조정안은 미봉책"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먼저 수용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복귀를 미뤘다. 일부에서는 기존 정원(3058명) 유지에 더해 2025학년도 증원분(1509명)까지 감축한 1549명으로 2026학년도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음주가 복귀 마감 시한이지만 의대생들의 복학 움직임은 미미하다. 그러자 전남대, 조선대 등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지난 19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질병 등 학칙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휴학은 불허하며 휴학 승인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이 때문에 의정갈등이 또 다시 '시계 제로'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도 이들이 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 교육 불능 상태가 되고 앞으로 수년간 산규 의사 배출이 끊기는 등 사상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다.

꼬이고 꼬인 의정갈등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의대생들은 일단 교육현장에 돌아와 요구조건을 관철시켜 나가길 바란다. 정부도 이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폐업 위기 몰린 소상공인 대책 내놓아야

폐업한 호남권 소상공인 대다수가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하고 평균 6.6년 만에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업시 짚어진 평균 부채액은 1억588만원이나 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경기 부활에 허덕이다 결국 폐업에 이른 호남권 지역 소상공인들의 슬픈 현실을 드러내 볼 수 있다.

이 조사는 지난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호남권은 전체의 18%인 148개사가 조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소기업중년 매출액이 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 숙박업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상시 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개인이나 법인 형태의 사업체를 말한다.

개인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증 없는 농민, 어민 등이 포함돼 있고 혼자 근무하거나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넓은 의미의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기간은 '6.6년'이다. 1년 이상~3년 미만인 39.9%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 21.6%, 5년 이상~10년 미만(18.2%) 등 순이었다. 1년도 채 안돼 문을 닫는 경우도 5.4%다.

폐업시 평균 부채액은 1억588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236만원)보다 높다. 부채액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이 3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00만원 미만(27.7%), 5000만원~7500만원 미만(20.3%) 등이다.

복수응답으로 살펴본 창업이유는 '생계유지'가 71.6%로 가장 많았고 폐업이유는 91.2%가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이라고 꼽았다.

특히 매출 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내수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1.1%), '인건비 상승'(48.1%) 등을 복수응답했다. 또 정부에 취업과 재정 지원을 위해 전직 장려금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재정업금 지원,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원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붕괴되고 있다. 소비와 생산의 주체인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두동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70 광고국 370-708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